

# 평화유지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의 소망

## 「내쇼날 프레스클럽」 연설문

1981년 2월 3일

이 자리에 모이신 저명한 언론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서 한국이 처한 중요한 과제와 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 과제는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평화유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우리 한국민에게는 평화유지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상과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의 무력침략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만 해도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켰으며, 남침 땅굴을 파고 무장간첩들을 다수 남파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총체적이며, 이념적으로 호전적인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 소련을 가리켜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인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실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정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타협적이며, 위험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 국민은 그 무엇보다도 평화와 안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러한 민족적 염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명을 바쳐왔으며,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위노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힘입은 바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북한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와 공동노력을 해 온 미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레이건」 대통령 영도하의 미국 신 행정부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역할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본인에게 한국의 안보유지에 관해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다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평화유지 노력을 위하여, 미국이 다짐한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본인은 우리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임무는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총생산고의 6%이며 우리나라 총예산의 37%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평화를 위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금년 1월 12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서울에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인은 다시 한번 이 초청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쌍방당국 최고책임자의 상

호방문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은 단순히 중요할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단합을 촉진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우리 군대의 전력을 강화해 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충분한 국방력을 유지하면, 북한은 결국 전쟁의 망상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우리 경제는 세계개발도상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자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우방, 그리고 발전의 동반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초대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자연자원이 대단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력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때로는 우방국으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희생시켜 가며 수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오해는 사실과 거리가 멍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만 해도 우리는 수입을 더욱 자유화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몇 년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우리의 교역상대국, 특히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이 상호혜택을 더해 준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와의 교역은 한국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세 번째 문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사회이든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불행한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구나 사회불안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사회적 혼란으로 우리 경제는 발전의 활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위축마저 가져 왔습니다.

본인은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특별한 묘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질서와 안정이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의 기틀을 다시 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진정한 안정은, 국민 대다수가 그 정부의 정통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할 때 비로소 이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제도는 아직 취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의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적 정치제도를 추구해 온 우리는 때로는 모순을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 개인주의와 질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균형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갈등과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극단적인 행동은 지극히 파괴적인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보다 현명해졌으며, 또한 성숙해졌습니다.

정치발전은 균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러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한국적 합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번 지적했다시피, 70년대의 한국정치의 갈등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국국민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란 무엇보다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이 확립되고 지켜지면, 다른 쟁점들은 헌정질서 내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헌정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자유와 보다 나은 정치 및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안정된 국내정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한국 국민의 목표, 즉 국가안보, 경제발전, 그리고 정치발전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여 이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이행고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1980년대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응답■

질문 : 대통령 각하, 각하는 만약 북한이 각하의 평양방문을 초청하면 수락하실 생각있으십니까?

답변 : 본인은 지난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김일성주석이 나를 초청하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할 것입니다.

질문 : 미국은 중공에 대해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우방인 한국도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 본인도 미국과 중공이 국교를 수립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중공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두 공산주의 강대국, 즉 소련과 중공 중 각하는 어느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중공과 미국은 친구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친구니까 「친구의 친구」인 중공이 덜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질문 : 각하,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강화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 대만과 우리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질문 : 한국이 북한보다 더 많은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는데 3만 9천명의 주한 미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답변 :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군사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규군의 수가 73만명인데, 한국은 61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군의 항공기수, 포병의 화력, 탱크의 전투력, 해군의 함대수에서 2대 1로 열세입니다. 북한은 국민들의 생활이나 경제성장을 돌보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에 모인 세계적인 기자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서는 자주 꼬집어 비판하는데, 북한에 관해서는 자료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의 파헤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사회를 좀더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 3만 9천명의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의 유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생존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고 소련이 북한을 사주해 전쟁도발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평화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은 많은 소련군을 극동에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간에 견제역할과 소련팽창주의의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한국에서는 1급 비밀에 속하는 내용으로 만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보안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질문 : 북한의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왜 언론을 통제합니까?

답변 : 그 동안 계엄령 실시로 언론검열이 있었는데, 미국도 계엄이 선포되면 마찬가지로일 것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어 이제는 언론통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각하는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군사적지원의 확약을 받았 습니다만, 「레이건」 행정부는 또한 연방예산의 삭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군사적 지원을 위한 미국의 재정적 능력에 관해 염려하시지는 않는지요?

답변 : 「레이건」 대통령은 절대적 힘을 유지하면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중요 지도자이므로 우방이 의욕을 갖고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는데 큰 정신적 격려가 되었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의 힘이 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도자의 능력, 의지, 「운영의 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살림살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산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운영의 묘」에 달려있지요. 나는 「레이

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미국의 영도력이 자유세계의 사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국의 영도력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